연극관람기

시민 조갑출

거대 사회속 소시민의 굴절된 탈출

◇극단 '맥토'의 서울연극제 참가작인 '시민 조갑출'. 정교한 무대셋트와 주인공역 이인철씨의 연기가 돋보였다

나는 배우다. 무대위에서 제4의 벽(관객)들에게 나날이 심판받는 입장에서야하는 연기자가 이제 남의 연극을 평하라고 하니 전문비평가를 모독하는게 아닌가 하여 약간 망설였으나 대학신문이라는 특성이 나에게 이상한 유혹으로 다가옴을 어쩔 수 없었다.

먼저 밝히고 싶은 건 이 글이 인상비평차원의 수준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나의 지적수준을 솔직히 인정하고 출발한다는 점이다. 미리 배수의 진을 치는게 아닌 나의 진실한 고백이다.

이 작품은 TV방송드라마작가의 희곡데뷔작이다. TV방송드라마로 방영된 작품을 희곡으로 개작하여 14회 서울연극제에 참가한 극단 '맥토'의 작품이다. TV방송매카니즘이 갖는 구조적 모순때문에 TV드라마에서는 이 작품(희곡)의 근간이 되는 광주문제는 아예 취급될 수가 없었고 기관원의 등장 역시 수사관으로 대치될 수밖에 없었다고 작가는 얘기한다. 이 연극은 40대의 한 남자와 정신과 의사와의 인터뷰로부터 시작된다. 얼마전 TV방송뉴스시간에 '내 귀에 도청장치가 돼 있다"고 소리치며 소동을 피운 조갑출이라는 소시민을 모델로 한 연극이다. 조갑출은 어느날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간첩으로 오인받고 체포됐으나 곧 혐의가 풀리고 대신 꽃을 꺾었다는 이유로 경범죄로 구류 이틀을 당한다. 다시 직장에 복귀한 그는 뭔가 의심스런 인물로 지목이 되고, 그는 이에 '대한민국은 개똥이다'라는 낙서를 화장실벽에 하게 된다. 이런 사실을 한 상무에게 들켰다고 생각한 조갑출은 직장에서 쫓겨 날까봐 걱정을 하는데, 한 상무는 그를 포섭해서 노조의 프락치로 들여보낸다. 그러나 조갑출은 차마 노조의 정보를 전하지 못하는데, 진짜 프락치에 의해 정보는 새어나가고 그는 과장으로 승진함에 따라 와해된 노조원들에게 배신자로 몰려 폭행을 당한다. 또한 그는 광주항쟁때의 친구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으로 강박관념에 빠져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그에게 정신질환적인 공포에 시달리게 만든다.

그러던 중 그는 전화기의 잡음을 도청당하고 있는 걸로 생각케 된다. 극도로 초조해 진 그는 도청장치가 있다고 믿는 것이다. 결국 귀에 이명현상이 생기고 방송국까지 뛰어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의사는 조갑출의 정신질환에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어느 날 그는 유쾌하게 취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길가던 한 남자를 정신적으로 그를 괴롭혔던 친구 고규태로 오인해 죽이게 된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상처로 각인된 광주라는 아킬레스건을 조갑출이라는 굴절된 캐릭터를 통하여, 기관원으로 통칭되는 정보사찰기능의 잔존, 사용자와 노동자와의 역학관계에서 비롯되는 비리와 모순을 병렬적 형식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민족극운동을 하는 집단을 통해서 간헐적으로 제시된 광주문제가 그들의 직설어법으로 무대에 형상화되었다면 '시민 조갑출'에서 작가는 광주와 노조와 보안법이라는 세개의 테제를 병렬시키면서 그 모든 요인의 복합적 탈출구로서 조갑출은 TV방송국침입이라는 해프닝에 이르게 됐고 끝내는 자해가 아닌 타인의 파괴를 통하여 자기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결말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조갑출이라는 소시민의, 광주항쟁때 희생된 친구의 죽음으로 인한 강박관념이 '시민 조갑출'의 출발점이라고 볼때 광주문제를 좀 더 관통시켜서 심도있게 천착, 정면돌파를 시도했더라면 더 중량감있는 무대가 됐으리라고 본다. 광주항쟁장면에서의 두 시민군의 희화화도 좀 더 다른 접근법이 있지 않았을까? 군대 병영에서 오갈수 있는 치기나 유희의 차원에서 죽음의 문제로 넘어가는 비약이나 사진 찍는 장면의 희화화, 그리고 이 곳에서 장렬하게 죽겠다는 고규태의 절규와 도피처를 찾는 조갑출의 대비도 좀 더 정교하게 교직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TV모니터를 기둥셋트로 이용하고 기본셋트중앙 바닥을 절개하여 스모그머신을 효과적으로 사용케 한 무대디자인은 후트 라이트의 수직조명과 함께 상당한 시각적 효과를 봤다. 전체적으로 등장인물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한 부분이라든가 극 진행상의 약간의 난삽함의 정리, 연기의 절제와 진지성만 좀 더 심화시키고 애초에 의도하였던 TV모니터의 다목적활용(상징적효과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음), 조갑출의 살인동기에 대한 당위성을 좀 더 친절히 전개시켰다면(희곡상으로 정리)좋았을 것같다.

노조, 보안법 통해 권력의 모순 병렬적으로 전개

희화된 광주 상황은 전체적 중량감 잃게해

그러나 이런 나의 작은 욕심들은 모든 연기자들의 열연으로 충분히 상쇄되고도 남는다는 점을 밝혀둔다.

앞으로 좀 더 개작하여 좋은 작품으로 다듬겠다는 작가의 비젼을 애정과 신뢰로서 받아들이고 싶다.

르네상스는 좋은 작가와 함께 하는 것이니까.

김 동 수
〈연극인〉

신 간

◆시힘5

80년대 시단의 민중시를 지향했던 '시힘'의 5번째 시집이 출간되었다.

황학주의 '나의 비애로 제압해야 하는', 최영철의 '깔려죽는 청소부'등 13인의 시가 실려 있으며, 특히 이번 시집을 통해 새식구가 된 나희덕, 이윤학, 이경호의 시가 눈에 띈다.

이번 시집의 특징은 '민중'이란 말의 인간해방적 속성에 주목하며 '민중적 서정성'이라는 새로운 시힘의 방향을 도출해내고 있다.

〈시민刊 값2천5백원〉

◆산티아고 데 쿠바의 하루

호세 소렐퓌그가 쓴 쿠바혁명을 그린 최초의 소설이다.

1988년경 바티스타 독재정권과 반제반독재 세력과의 접전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암흑같은 시절에 독재와의 투쟁을 시작한 쿠바의 청년들을 다루고 있다. 노동자 출신으로서 실제로 반독재 운동에 나섰던 작가는 소설에서 인간이 가져야 할 자유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공동체刊, 값3천5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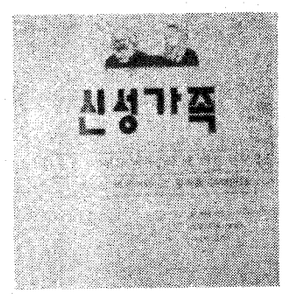
◆자본주의의 해부

자본주의와 사회제도 비교 연구, 자본주의의 기원과 그윤리, 자본주의 사회과정에 대한 비판적 평가등 자본주의를 둘러싼 여러 문제를 다룬 '자본주의의 해부'가 연세대 경제학과의 홍훈 교수에 의해 옮겨졌다.

스베토자 페조비치, 디이테오프등의 논문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보수적인 비판을 읽을 수 있으며, 자본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경제, 사회이론과 이념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 자본주의를 수용하는 측과 거부하는 측 모두에게 이 체제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학민사刊 값3천원〉

◆신성가족, '비판적 비판주의'에 대한 비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1844년 파리에서 공동으로 저술한 최초의 저작집이 '브루노 바우어와 그 일파를 논박한다'는 부제로 국내에 처음 소개되었다.

당시 독일 지성계를 풍미하던 헤겔적 관념론자들, 즉 브루노 바우어와 그 일파의 관념적 철학사조에 대한 비판서로서 변증법적·사적 유물론, 정치경제학의 주요 개념들의 초기적 맹아가 담겨 있다.

〈이웃刊, 값5천원〉

생명·사랑·자유혼의 초상화

이석우
(문리대교수·사학)著

'예술혼을 사르다 간 사람들'

전환기 불운한 화가의 예술세계 추적

실증적 날카로움과 섬세한 분석력 돋보여

詩聖괴테는 '고독 속에서 천재가 길러지고 시련 속에서 인간이 성숙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조용한 깨달음을 일러주는 책이 한 권 출간되어 관심을 끈다. 본교 사학과 이석우교수의 미술평론집 '예술혼을 사르다간 사람들'(가나아트刊)이 그것이다. 이 책은 전환기 이땅의 척박한 현실 속에서 말 그대로 예술혼을 불태우다간 열세명 미술가의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하고 있다. 손상기, 오윤, 최욱경, 박길웅, 하인두, 박항섭, 권진규, 양수아, 박래현, 박수근, 김환기, 박생광, 이응노 등 실존적·운명적 한계와 부딪쳐 싸우다가 좌초하거나, 사회적·역사적 질곡과 맞서 끝까지 격투를 벌이다가 사라져간 미술가들의 비극적이지만 아름다운 삶과 예술을 추적해가고 있는 것이다.

사학자로서의 실증적인 날카로움을 시종 잃지 않으면서도 미술평론가로서의 섬세한 직관과 분석력, 그리고 한 미술 애호가로서의 따뜻한 예술애와 인간애를 견지함으로써 진정 예술이란 무엇이고, 예술가란 무엇이며, 그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것은 무엇인가를 일관성있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작가들은 모두가 불우한 삶 속에서 생애를 이끌어 가며 예술혼을 불태우다가 사라져간 비극적인 인물들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들은 대체로 다음 몇가지 부류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신체적인 불구나 불치병등 운명적인 한계에 맞서 사투를 벌이며 예술혼을 불태운 사람들이다. 꼽추인 손상기를 비롯해서 암등으로 병마와 싸운 오윤, 하인두, 박래현 등이 그러한 예가 된다. 둘째는 실존적인 측면 또는 개인적인 자기구원의 몸부림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말해준다. 손상기가 꼽추라는 육신의 질곡에서 스스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며 예술창작 속에서 구원을 갈망한 것이 그 한 예가 될 것이다. 아울러 죽음마저도 예술로 생각하면서 불치병과 싸우며 예술혼을 불태운 하인두나 박래현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여기에선 '생명'과 '예술'이 그 핵심이 된다. 둘째로는 예술적인 절망과 싸우며 절대적인 미를 찾아 끝없이 반역하며 실험정신을 불태워간 경우이다. 박수근이라든지, 양수아 그리고 이응노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렇게 본다면 이들의 생애는 한결같이 가난과 고독, 불운과 좌절 등 인간적·예술적 절망과 시대적 어둠 속에서 몸부림치며 예술의 빛을 갈구하다가 좌초해간 비극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그러기에 이들의 비극적인 생애와 예술은 그대로 삶과 예술의 본성이랄까 의미를 생생하게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으리라.

그것은 삶이, 또 예술이 첫째라고 하겠다.

말하자면 '절대미' 또는 '예술' 그 자체의 층위를 추구하며 살다간 박길웅이나 최욱경, 박항섭, 김환기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세번째로는 사회적 삶, 인간적 삶으로서의 층위라고 할 수 있다. 빨치산 화가로서 '역사'의 격랑 속에 좌초해간 양수아나 '민중'적 생명력을 추구해간 박수근과 오윤, 그리고 남북분단의 아픔을 직접 체험한 이응노 화백들의 삶과 예술이 그것이다. 마지막 네번째로는 초월적인 세계 또는 종교적인 삶 내지 신성사적 층위가 그것이다. 달관과 무욕으로서 불교적인 상상력과 세계관을 추구해간 박생광의 경우가 그 한 예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들의 삶과 예술의 역정 속에서 소중한 사실들을 깨닫게 된다. 그 무엇보다도 삶이 예술과 크게 분리될 수 없듯이, 예술 또한 삶과 도저히 무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삶과 예술은 그것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같을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생명'사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생명이 지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고, 존중돼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사랑'이며 '자유'사상이라 할 수 있다. 생명을 생명답게 하는 것은 사랑이며 자유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진실과 미의 사상이다. 진실과 아름다움이란 인간을 완성시켜주는 근원적인 힘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생명과 사랑과 자유, 이 세가지 핵심이야말로 인간의 삶과 예술에 있어서 근본 원리이자 구조이면서 동시에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생명, 사랑,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며 진실과 미에 대한 갈망과 동경을 일깨워 주고 있는데서 의미가 드러난다.

김 재 홍
〈문리대교수·국문학〉

서 평

현상학

참고 영람신

현상학은 20세기 초 독일의 수학자 출신 철학자 Edmund Husserl(1859~1938)에 의해 시작되었다. 현상학은 일종의 방법적 개념으로 철학 일반 뿐 아니라 사회과학, 인문과학쪽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끼쳤다. 즉 '현상학'은 20세기의 諸학문을 포괄하는 하나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Husserl은 지금까지의 모든 철학적, 과학적 편견과 경험을 당연시하는 자세를 버리고 처음부터 시작하라고 하면서, '사물 그 자체로 돌아가라!(Back to the things)'고 한다. 여기서 현상학적 개념들, 즉 '판단정지(epoche)', '세계의 운용정지(putting the world out of play)', '세계에 대한 믿음의 보류(suspension of belief in the world)', '괄호묶기(bracketing)', 또는 '현상학적 환원(the pbenomenological reduction)'등의 표현이 나온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문화(언어와 상징구조 포함)자체를 보류, 괄호에 넣고, 그 자체를 의심해 보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다고 배운 바를 으례히 당연시하지말고, 사물을 보는 방법도 배운대로 하지 말고, 일상세계의 모든 가정들을 묶어 두고, 사물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는 바 그대로를 바로 그 사물의 본질로 간주하여 그것을 발견하려는 자세를 말한다. 이런 것이 훗설이 지향하는 '엄밀한 學으로서의 철학'인 것이다.

따라서 현상학의 방법론적 과제는 항상 자체를 우리의 의식에 나타나는 모습대로 정확하게 묘사하는 일이다. 이때 의식과 그 의식의 대상의 떼어 놓을수 없는 관계가 성립한다. 즉, 순수의식의 인식작용 자체는 noesis(예; 생각·사랑·의심등)이고 그런 의식의 대상, 즉 객관적 대상(내가 생각하는 바의 것, 느끼는 바의 것등)치를 noema라고 하며, 현상학에서는 대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식)에 의하여 구성되는 바의 '본질적인'의미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현상학의 과제는 일상적으로 당연시하는 세계 속에 자리잡은 자기(the situated-ego)의 '순진한'(naive)태도, 자연스러운 견해를 정지시켜 버리고, 자리잡지 않은 초월적인 '순수자아'의 영역을 드러내려는 시도인 것이다.

편견배제, 보이는 자체를 본질로 간주

박 은 주 〈본교 대학원 석사과정·사회철학〉

조경현
1964년 2월 22일생. 미혼
1986년 2월 이화여대 미대 생활미술과 졸업
1986년 8월 (주)언더우드 광고디자인실 입사
1990년 5월 (주)언더우드 대리
현 (주)언더우드 광고부(長)

"기회는 노력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이·랜드에서 남과 다른 생각을 가진 신입, 경력사원을 뽑습니다.

기회는 발견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또한 노력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회사의 초창기였던 1980년,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과 "편안한 서비스"를 갖추기 위해 우리는 남들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많은 일들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전직원이 도시락을 싸오며 사무용품은 중고품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새벽시간을 이용해 더 많은 시간을 일해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전 사원의 남다른 노력을 통해 이익을 내며, 사원 한사람 한사람의 희생을 통해 정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좀더 편한조건과 환경속에서 일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엄격한 규율(금주, 금연)속에서 인생의 참된 목적과 방법을 탐색하며, 토요일 오후근무, 청결한 삶을 깨닫게하는 청소, 새벽 6시에 시작되는 신입사원교육등을 통해 겸손과 성실, 인내를 배우고 있습니다. 1990년 현재, 우리는 지난 10년을 통해 배웠던 성공의 방법을 디딤돌로 삼아 다시 출발하려 합니다.
국민에게 유익과 자랑스러움을 주는 기업이 되기위해 우리가 해야할 일은 아직도 무궁합니다. 위대한 비젼을 향해 노력하는 이랜드와 함께 도약의 신화를 만들어 갈 성실한 가족을 찾습니다. 그러나 감당할만한 자기희생을 통해 인격을 완성하려 하고, 열매보다는 과정의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귀하게 여기며, 30년을 남다른 성실로, 노력할 각오가 되어있는 분에게만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랜드 인력관리위원회

1. 전형방법
●1차 : 서류전형 ●2차 : 장시간의 면접
●3차 : 본부장 면접 ●4차 : 적성검사, 신체검사
*1차 합격자에 한해 2차전형, 2차합격자에 한해 3차 전형을 실시하며 일정 및 장소는 개별통지 합니다.

2.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관리직●

부 문		전 공	인 원	자 격 요 건
일반관리 (대리점관리)		전학과	190명내외	*신입사원 ●남자 : 1963년 1월1일 이후출생자(병역 필한자 또는 면제자) ●여자 : 1967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석사학위 소지자는 1월1일이후 출생자 ●공통 : 1. 정규4년제 학위취득 및 91년 2월 학위취득 예정자. 2.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자. 3. 크리스찬이거나 기독교에 대해 배울 마음이 있는분. *경력자는 연령제한 없음. (단, 시계디자인은 경력 2년이상). *직업정신이 투철한 여자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합니다.
생산, 구매관리		산업공학, 공업경영 섬유관련학과	60명내외	
기획, 재무, 총무 해외사업		경상, 법정계 어문, 무역계	45명내외	
디자인	의류, 시계 악세사리, 구두, 광고 디스플레이	디자인 관련학과	70명내외	
인테리어		건축, 인테리어관련	10명내외	
건 설		건설관련학과	5명내외	
전 산		전산관련학과	10명내외	
합 계		390명내외(2직모집인원) 90년 하반기는 7, 9, 11월 3차에 걸쳐 800명 모집계획. 선발인원은 지원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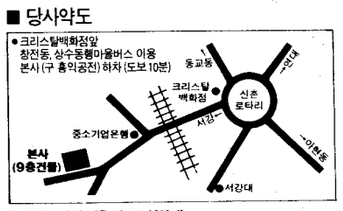
3. 제출서류
●입사지원서(당사소정양식)……1부
●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1부
●전학년 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1부
●석사학위 소지자는 대학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포함.
●취업보호대상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교부기간 : 1990년 9월17일(월)~9월22일(토)
●접수기간 : 1990년 9월25일(화)~9월27일(목) (오전10시에서 오후5시까지, 휴일은 제외)
●접 수 처 : (주)이랜드 기획조정실 인사과(8층) 121-190)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19-8) TEL : (02)323-1685, (02)332-8306

5. 기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우편접수는 1990년 9월27일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국가보훈 대상자는 관계법에 의해 우대합니다.
●신체장애자 지원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당사 기획조정실 인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교부처
서울/명동헌트(02)779-1045, 영등포언더우드(02)671-1665, 종로제롤라모(02)747-5004 부산/코오롱 브렌따노(051)245-4108, 대구/한일로이랜드(053)425-3107 광주/충장로이랜드(062)223-5253, 대전/대전헌트(042)256-6664

■ 당사약도



■ 신촌로타리 경유 버스노선안내
7-1, 33, 50, 70, 47, 88, 92, 103, 118, 129, 131, 132, 133, 133-2 134, 135-1, 141-1, 145, 148, 328-1, 361, 522, 588, 806
(좌석 : 47, 72-1, 129-1, 601)

●모집회사●

EILAND (주)이·랜드 1980. 9 출범. Ivy Style을 추구하는 캐쥬얼의류 회사
Brenntano (주)브렌따노 1983. 5 출범. Italian Casual을 기본으로 하는 캐쥬얼의류 회사
UnderWood (주)언더우드 1985. 5 출범. 좋은 사람들의 좋은 옷을 만들어 내는 캐쥬얼 의류회사
the HUNT (주)헌트 1988. 12 출범. The New Classic을 배경으로 합리주의를 실천하는 캐쥬얼 의류회사
Little Brenntano (주)리틀브렌 1989. 4 출범. Italian Children's Wear를 지향하는 아동복 회사
GERALAMO (주)제롤라모 1989. 12 출범. New Tradition과 Formal을 추구하는 숙녀복 의류회사
SHANE (주)쉐인 1990. 1 출범. 정통 웨스턴 진을 선보이는 진전문 의류회사
Teresia (주)테레지아 1990. 1 출범. 악세사리 전문점 구성을 목표로 하는 악세사리 회사
LLOYD (주)로이드 1990. 1 출범. 독특한 유통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시계전문회사
Leonardo Ferre (주)레오페레 1990. 1 출범. 숙녀화를 중심으로 악세사리, 소품류를 갖춘 구두 전문회사
Underwood Construction Co.
건축사업부 1988년 12월 출범. 사옥관리, 주택사업, 건축자재사업, 레저산업 등을 펼칠 건설회사
International Business Dept. 해외사업부 1989년 1월 발족, 제품 수출입 업무, 신규브랜드 시설, 해외투자, 브랜드 수출분야를 추진하는 사업부
Interior Dept. 인테리어사업부 1986년 발족, 89년 10월 확대개편, 인테리어, 디스플레이 등을 총괄하는 사업부

신현학
1959년 7월 17일생 미혼
1983년 2월 경북대 사회학과 졸업
1985년 8월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1986년 2월 (주)이·랜드 입사
1987년 1월 (주)이·랜드 경영고문
1989년 9월 해외사업부 차장
현 해외사업부 본부장